

人文論叢

82권 3호

2025년 8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말과 글, 삶과 사랑, 이런 것들이 인문학의 중심 주제라면,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는 인문학의 중심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이런 주제를 모두 다루다 보니 『파이드로스』는 난삽하다. 플라톤의 작품 중에서 글의 유기적 통일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파이드로스』는 그의 작품 중에서 유기적 통일성이 가장 부족해 보인다. 플라톤은 괴짜다. 그는 글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글들을 통해 전달한다. 그는 아름다운 나라에서는 시인이 추방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글들에 다양한 신화를 남겨 놓는다. 그는 이성이 지배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주장하면서 광기를 예찬한다. 플라톤의 괴짜다움은 『파이드로스』에서 정점에 달한다. 글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며,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화적 이야기도 여기에 등장하고, 바로 그 신화적 이야기가 광기를 예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기획은 『파이드로스』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두 연설을 주제로 한다. 말과 글과 사랑, 또 말과 글에 대한 사랑 등이 『파이드로스』에서 다 다루어지지만, 『파이드로스』의 중심은 사랑에 대한 말 혹은 글이다. 사랑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연설들은 『파이드로스』에서 플라톤의 괴짜다움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기획의 논문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의 두 연설에서 드러나는 괴짜다움을 다룬다. 플라톤의 작품들은 괴

상적 독서를 방해하는 기이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 그러한 기이한 요소들은 플라톤의 글을, 단지 그것을 읽기만 해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진리의 말 씬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사고할 것을 촉구하는 초대장으로 만드는 장치들이다.

김민수의 논문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저질러야 하는 잘못』은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연설이 에로스 신에 대한 불경이라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만 이 잘못은 ‘저질러야 하는 잘못’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파이드로스는 튀시아스의 연설이 불경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음을 개의치 않은 채 그 연설에 매료되어 있다. 소크라테스는 비슷한 내용의 연설을 그가 매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파이드로스를 불경에 동참시키고, 그 불경을 정확히는 두 번째 연설도 그가 매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그의 영혼을 이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야기에 대한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는 파이드로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강성훈의 논문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흰 말과 검은 말」은 두 번째 연설에 등장하는 마부와 두 말의 비유가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이성, 기개, 욕구를 연상시키지만, 플라톤이 그것들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단서들을 숨겨두었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의 저작들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가 이성과 욕구를 대비하고 욕구를 억압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연설은 바로 그러한 피상적 인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훈에 따르면, 두 번째 연설에서 제시되는 마부와 두 말의 비유는 바로 그러한 오해를 극복하는 영혼 모델이 된다. 이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와 상관 없이, 아이도스(염치) 성향인 동기들은 모두 흰 말이 대변하고 휘브리스(방종, 오만) 성향인 동기들은 모두 검은 말이 대변한다는 것이다.

서재호의 논문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육화된 영혼의 상기에 대하여」는 플라톤에서 인간의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 상기를 촉발하는 매개이자 신성을 공유하는 신상(神像)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인간은 상기를 통해 신과 닮게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단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전체의 변용을 요구하는 실존적 과제이다.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은 영혼과 몸의 통일체로서 인간이 신과 닮아가는 과정에 에로스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랑받는 이의 아름다운 몸은, 그것을 단순히 아름다운 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아름다움이 현전하는 신상으로 보는 자에게는 경외와 두려움을 유발하는 입교의 문턱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플라톤의 괴짜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인문학은 애초에 플라톤식의 괴짜다움을 공유한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자구 하나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몇 날 며칠을 다투는 것이 또 인문학이다. 기획 논문들을 준비하며 우리는 여러 차례의 줌미팅을 하면서 다양한 해석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나누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기획의 최종 단계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토론에 함께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성훈

